

영화산업의 미래를 위한 실천 전략 한국과 일본의 노동·안전·성평등 토론회

사전 참가신청



날짜 및 시간

5.3(일), 2pm

장소

전주중부비전센터 2F 글로리아 홀
(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3길 34)

참석대상

안전하고 성평등한
영화산업에 관심있는 모두

참석자

- 사회 : 여성영화인모임 김선아 이사장
- 발제 1 :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이은혜 사무국장
- 발제 2 : 일본예능종사자협회 메구미 모리사키 대표
- 토론자 :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안병호 위원장
- 토론자 : 영화감독, 한국독립영화협회 성평등위원회 박소현 위원

일본예능종사자협회 소개

2021년 4월, 일본의 예능 종사자가 처음으로 얻은 국가 사회보장인 특별가입 산재보험 제도의 운영을 위해 도쿄 노동국의 승인을 받아 설립. 전국 단위 약 52,000명/350이상 직종의 예능종사자 인 워커(Worker)가 가입되어, 노동 안전보건과 사회보장, 산재보험 관련 창구 업무, 괴롭힘 문제(성희롱, 권력형 괴롭힘 포함)에 적극 대응하며 현장 중심의 지원과 정책 제안을 수행하고 있음.

문의처 여성영화인모임 / 02-723-1087 / wifilm@hanmail.net

映画産業の未来のための実践戦略

韓国・日本 労働・安全・ジェンダー平等討論会

開催時間

5.3(sun), 2pm

会場

全州中部ビジョンセンター
2階 (グロリアホール)

参加対象

安全でジェンダー平等な映画産業に
関心のあるすべての方

- 司会 : 女性映画人の会 代表 キム・ソナ
- 発題1 : 韓国映画性平等センター「ドゥンドゥン」イ・ウネ事務局長
- 発題2 : 森崎 めぐみ 一般社団法人 日本芸能従事者協会
代表理事 / 俳優
- 討論者 : 全国映画産業労働組合 アン・ビョンホ委員長
- 討論者 : 映画監督 (社韓国独立映画協会 性平等委員会 パク・ソヒョン委員)

주최



주관



후원

